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평행장이 이끄는 왜군은 파죽지세로 조선을 침략해 들어오지만, 명나라 제독 이여송의 군대가 참전하여 평양을 탈환하면서 전쟁은 교착 상태에 이른다. 조선 장수 유성룡과 의병 김천일은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며 전쟁이 길어지고 있음을 탄식한다.

각설, 창의(倡義) 김천일의 군중에 이시충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가 스스로 ㉠ 경성에 들어가 왜적을 탐지할새 양(兩) 왕자와 그 배행(陪行)* 등을 찾아보고 돌아와 이르되,

“적이 강화(講和)할 뜻이 있다.”

하더니 오래지 아니하여 적장 평행장이 김천일의 군영에 글월을 보내어 강화하기를 청하거늘 김천일이 주사를 거느려 용산에 있더라. 김천일이 그 글로써 유성룡에게 보내니 유성룡이 하여금 뵈고 제독에게 보내어 여쭙니, 이여송이 즉시 유격장군으로 심유경을 경성에 보내어,

“왜적의 동정을 탐지하라.”

하고 뒤를 따라 대군을 거느려 송도에 머무르니라.

이때 심유경이 행하여 동파에 이르니 도원수 김명원이 심유경에게 이르되,

“적이 ㉡ 평양에서 속았던 일을 분노하여 하니 반드시 좋은 뜻이 없을까 하노라.”

심유경이 소 왈,

“적이 어찌 나를 해하리요.”

하고 드디어 경성에 이르러 적장 평행장을 보아 가로되,

“너희 만일 강화하고자 할진대 먼저 조선 왕자와 신하들을 돌려보내고 군을 ㉢ 부산으로 물린 후 비로소 화친을 허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조선팔도 용병이 벌떼처럼 달려들 뿐만 아니라 천자께서 분노하사 대병을 보내어 너희를 전멸하려 하시나니 일찍이 뜻을 정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라. 만일 말을 듣지 아니하여 하늘과 신령이 한가지로 노하시면 그때 비록 돌아가고자 하나 미치지 못하리라.”

하니 평행장이 이르되,

“그러면 우리 군사를 물려 본국으로 돌아간 후 중국이 조선으로 더불어 벼슬을 일본으로 보내어 화친을 이르게 하라.”

심유경 왈,

“실로 화친할 뜻이 있거든 조선 왕자와 신하들을 돌려보내라.”

평행장이 허락하거늘 심유경이 즉시 돌아오니라.

이때 청정이 경성에 돌아왔더니 평행장이 청하여 퇴군할 일을 의논하되 청정 왈,

“이제 어찌 무단히 물러가리요. 더 나아가 이여송을 항복 받은 후 바야흐로 돌아가리라.”

하고 즉시 장수 엄홍과 이현을 불러 왈,

“너희는 나아가 이여송을 불러 이르되 만일 퇴군하여 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거든 즉시 그 머리를 베어 오면 후한 상을 내리리라.”

하거늘 양장(兩將)이 명을 주의 깊게 듣고 각각 날카로운 단도를 감추고 ㉣ 송도에 이르러 군영으로 들어가니라.

이때 이여송이 장중에서 머리를 빗더니 홀연 은항아리 둘이 장중으로 들어오거늘 이여송이 자객인 줄 알고 황망히 한 손으로 빗던 머리를 붙들고 한 손으로 보검을 들어 장중에서 마구 치니

병기 서로 부딪는 소리 장 밖에 들리는지라. 제장이 놀라 창틈으로 엿보니 은항아리 셋이 장중에서 구르니 대개 검술을 잘하면 검광이 원뿔을 둘러 은항아리같이 되는지라. 제장이 감히 들어가지 못하더니 이윽고 제장을 불러 이것을 치우라 하거늘 제장이 그제야 비로소 들어가 보니 두 사람의 지신이 있거늘 제장이 놀라 왈,

“장이 좁기로 들어와 돕지 못하옵더니 제독의 신위(身位)로 양적을 하례치 아니리이까.”

이여송이 웃어 왈,

“자객이 본디 칼쓰기를 너른 곳에서 배운 고로 장중에서 임의로 쓰지 못하여 내게 배인 바 되나 만일 장 밖에서 싸웠다면 힘을 많이 허비할 뻔하였다.”

하더라.

이때 군영에서 양식이 다하여 굶주려 죽는 자가 많으니, 평행장이 청정으로 더불어 의논을 정하고 평조신 평조강으로 더불어 충청도로 내려가 군량을 수운하라 하는지라. 양장이 명을 받들고 일만 정병을 거느려 남대문으로 쫓아 청파(靑坡)로 향하거늘, 문득 대풍이 일어나며 검은 기운이 적진을 둘러싸고 무수한 신병(神兵)이 쫓아오는 곳에 한 장수가 당도하여 왜장과 충돌하매 낮은 무른 대추빛 같고 붉은 봉황 같은 눈에 눈썹을 거스리고 손에 청룡도(靑龍刀)를 들고 적토마(赤兔馬)를 탔으니 위풍이 늠름한지라, 적병이 두려워하여 황망히 달아날 새 서로 짓밟아 죽는 자 무수하더라. 그 장수 바로 남문으로 쫓아 깨쳐 들어와 동대문을 짓쳐 나아가더니 홀연 간 데 없는지라. 평조신 등이 군사를 태반이나 죽이고 겨우 목숨을 보전하고 돌아와 평행장을 보고 그 일을 고하매 평행장이 대경하여 왈,

“이는 반드시 삼국적 관운장이 현성함*이로다. 전일 당장 심유경이 이르되 우리 만일 돌아가지 않으면 천신이 한가지로 노하리라 하더니 과연 그 말이 맞았도다. 이제 만일 돌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화를 입으리라.”

하고 즉시 각 군영에 명하여 군사를 거두어 ㉤ 도성을 떠나 어지러이 한강을 건너 삼남*을 향하니라.

-작자 미상, 「임진록」-

*배행: 윗사람을 모시고 따라감.

*현성함: 높고 귀한 사람이 죽은 후에 신령이 되어 나타남.

*삼남: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세 지방을 통틀어 이르는 말.

18.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 ② 풍자적 어조를 활용하여 인물의 행보를 희화화하고 있다.
- ③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감각적 표현을 통해 특정 상황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⑤ 인물이 처한 상황에 걸맞은 속담을 삽입하여 교훈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